

원자재값 폭등 … ‘벼랑 끝’ 지역 건설사

철근값 작년보다 84% 치솟아 … 올해 하청업체 21곳 부도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인하 등 시장 활성화 대책 긴요

28일 광주시 광산구의 A아파트 현장소장은 공사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철근 폭등 현상으로 인해 갖은 고생 끝에 골조공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그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치는 판에 철근 등 자재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진행에 큰 애를 먹었다”며 “골조가 올라갈수록 철근값도 덩달아 뛰는 바람에 공기를 맞추는 데 힘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건설업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분양 사태 속에 철근 등 건자재값까지 연일 급등하면서 업체들의 자금난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선 종합건설업체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시장 침체의

‘불똥’이 하청업체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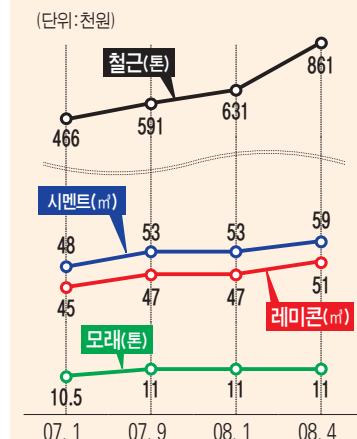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4월 현재 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거래되는 철근값은 톤당 86만1천원에 달한다. 이는 2월에 비해 16.2%(12만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1월(46만6천원)에 비해선 84.8%(39만5천원)나 뛰었다.

레미콘도 3월4일과 19일 등 두 차례의 공급중단을 거치면서 m³당 가격이 5만1천100원으로 치솟는 등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부도처리된 전문건설업체는 총 21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총 부도 건수(14건)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시장 침체로 인한 하청업체

■ 광주·전남 건자재 가격 동향



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올해 D업체와 Y업체 등 관내 10위권 업체 2곳을 비롯해 총 11곳이 부도처리됐다. 전남도 G건설 등이 지난해 말 거점건설의 부

도 여파로 인해 문을 닫는 등 부도업체가 10곳에 달했다.

또 이같은 건설업체의 불황은 해당 하청업체는 물론, 인테리어·부동산 중개업소·아파트 상가 등 관련업계의 침체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방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건자재 수급 안정, 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협상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지방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취득·등록세 완화, 미분양주택 계약자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



‘호남권 리사이클링 센터’

폐전자제품 재활용 시설인 ‘호남권 리사이클링 센터’가 2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에 들어선 리사이클링 센터는 연간 24만대의 폐전자 제품을 처리해 1만t 이상의 재활용 재료를 생산한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금호아시아나 1분기 매출 사상 최대

총 4조9천억 … 지난해보다 30% 늘어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고유가 환율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1~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1~4분기 매출이 4조9천7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1조1천434억원) 늘었다.

경상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0.1% (2억원) 감소한 2천702억원을 기록했으며, 경상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6%(1천828억원) 줄어든 1천2억원이었다.

그룹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고유가

업이익 286억원, 금호석유화학은 매출 6천511억원, 영업이익 537억원이었다.

대우건설은 1·4분기에 매출 1조3천27억원, 영업이익 597억원, 금호타이어는 매출 1천247억원, 영업이익 288억원, 대한통운은 매출 3천432억원, 영업이익 182억원을 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1·4분기 그룹 실적은 지분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회성 요인에 따라 일시적인 손익악화가 있었다”면서 “2·4분기부터는 각 사업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양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남양건설 창립 50주년 ‘비전2020 선포’

마형렬회장 회고록 발간



광주·전남지역 종관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오는 5월1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

남양건설은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창립식을 통해 ‘남양건설 50년사’ 및 마형렬 회장<사진>의 회고록 발간 행사를 갖는 등 회사 설립을 자축한

다. 를 다질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 남양건설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열고 글로벌기업 도약에 대한 의지

를 다질 예정이다. 남양건설은 지난 1958년 창립 이후 50년간 성장을 거듭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시공능력평균순위 36위, 매출액 6천500억원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 신규수주액과 이월공

사업액이 각각 1조5천억원, 2조6천

억원에 달할 만큼 중견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광·해남 등 3개 특화단지

‘신재생에너지 벨트’ 만든다

전남도, 2조3천억 투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고인 전남도가 서남해안 일대를 대규모 에너지 생산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한다.

전남도는 29일 고유가와 기후 변화협약 등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남해안 지역에 태양광·해상 풍력·조류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 단지 건립을 험지로 한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에서 ▲해상 풍력 특화단지(영광·신안 연안) ▲조류 발전 특화단지(진도·완도·여수) ▲태양광 특화단지(해남·강진·보성·고흥) 등 3개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며 국비 1천32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모두 2조 3천832억원(지방비 690억원, 민자 2조 1천82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집적화단지 조성 및 부품공장

을 유치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전용산업단지 및 특화·실용단지, R&D센터 등도 건립하기로 했다.

전남도 최장주 과학기술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벨트는 전남지역으로서는 비교우위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점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세계 에너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28일 동신대와 스마트 카드 및 금융거래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동신대 회의실에

서 정태석 은행장과 정기언 동신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연말까지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광주은행의 스마트카드 시스템은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두번째로, 이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유비쿼터스 캠퍼스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카드는 일반 플라스틱 카드에 신분증, 교통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기능 등을 탑재한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은행 - 동신대 협약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확장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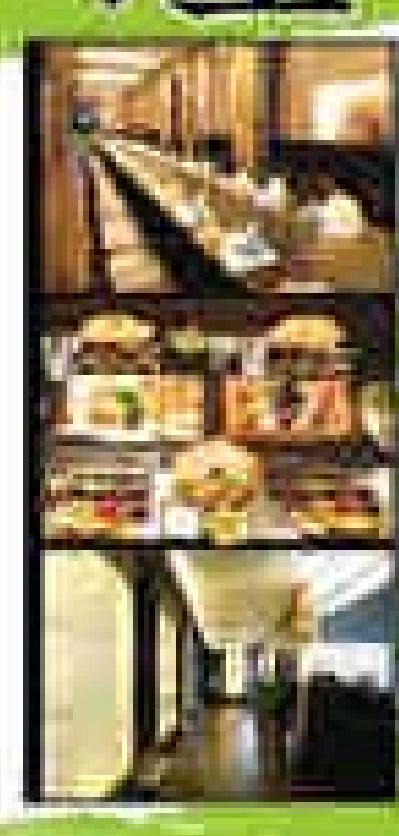
설립 20주년을 맞아 10년 후 영광으로 미래를 꿈꾸는 광주인들의 꿈을 꾸려온다.

영광에 학생들을 데려온 교육기관과 함께 광주인들의 꿈을 꾸려온다.

한신/주일특선

비단원식	11,000
비단원식	11,000
비단원식	11,000

▶ 단체 50석 특별 (후기는 광주한국여행)



234-0001

호남최대!!

안마의자·홈사우나 전문매장

OPEN

● 백만원대 안마의자

• 단체 50석 특별 (후기는 광주한국여행)

• 모든 치료 및 헌터 치료

▶ 단체 50석 특별 (후기는 광주한국여행)

▶ 단체 50석 특별 (후기는 광주한국여행)